

## 호반의 도청소재지 - 춘천의 건축과 삶 The Architecture and The Life in Chuncheon

박경립 /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Kyung-Rip

### 산과 호수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고장 - 터에 대한 인식

터에 대한 인식은 자연환경으로서 춘천이라는 그릇의 이해와 그 안에서 펼쳐졌던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한 지역의 전통문화와 건축도 이 같은 바탕 위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자연과 역사 그리고 그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춘천은 물과 산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도시이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룡산, 북배산, 금병산, 오봉산 등의 높은 산과 그 안의 분지 위에 자리잡은 터 춘천은 댐 건설과 함께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호수가 도시로서의 춘천의 그릇을 한정하고 있다.

시내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띠는 병풍처럼 둘러진 산. 우두벌과 샘밭 등의 평야가 있고 분지 가운데로 북한강이 흐르는 곳. 곳곳에서 발견되는 선사시대의 유물과 유적은 이 일대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일찍부터 선조들이 살아온 터임을 알 수 있다. 이중환이 지은 택리지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평양 외성, 여주와 더불어 춘천을 꼽고 있다. 그는 춘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물가에는 돌이 있고 돌 아래는 강이 있으며, 강 너머에는 산이 있다. 비록 두메의 가운데에 있지만 트여있어 시원하고 상쾌하며, 또 강 하류로 배가 통하여 생선과 소금의 이익이 있다. 주민은 장사를 하여 부유하게 된 자가 많고 백국 때부터 지금까지 인가가

줄지 않았다 ...". 또한 춘천은 중부지방 수운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활발히 하였다. 중부지역과 영동지역의 세곡을 모아 한양으로 운반하는 세곡집산지였으며 목재, 지방 특산물 등의 교역이 이루어진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기능도 한강유역의 댐 건설과 더불어 상실되어 전형적인 지역 거점도시로 남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춘천의 교동동굴, 북산면 내평리 주거지, 중도 유적지 등이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 다수의 지석묘와 주거지가 발견되어 이 지역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도 주거지와 분묘 등에서 철기시대 유적으로 보여지는 집자리와 무덤양식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물과 유적들은 서해안 계통의 주조 위에 동해안의 특징이 유입된 것으로 해석되며, 강줄기를 따라 문화의 유입과 전파가 활발하였다고 한다.

삼국시대의 춘천은 백제의 지배를 받다가 후에 고구려의 영향권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 후에는 9주중 우두주의 영역을 관할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후 광해주로 바뀌어 고려초까지 쓰이다가 고려 태조 23년에 춘주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 춘천지역에 관한 기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지명의 변경 및 외적 침입에 관한 사항은 문헌으로 전해진다. 기록을 통해 보면 1217년 거란의 침입과 1253년 몽고 4차 침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이 지역민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항전을 하였고, 전란 중에 건조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를 쓴 도호부 이하의 관명을 모두 산, 천, 양, 성으로 개정할 때 춘주는 춘천이라는 현재의 지명을 갖게 되었다.

그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관사, 향교를 포함한 대부분 건물들이 소실되었다. 다른 군현에서는 읍성을 쌓아 진을 이루고 방비하는데 반해 춘천은 읍성이 없이 전산인 봉의산에 산성을 쌓았을 뿐이다. 이는 천혜의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도시의 외곽인 삼악산과 용화산에 산성을 쌓고 방비를 한 때문이고 관아가 봉의산 높은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이



봉의산을 중심으로 본 춘천



의암호

기도 하다. 숙종 원년(1675)에 전라시 임금의 피난처로 이궁을 축성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고종 25년(1888)에 유수부로 개편되었으며, 1890년 춘천유수였던 민두기에 의하여 2년여에 걸쳐 이궁이 지어지기도 하였다.

미군정하에서 춘천읍은 1946년 춘천시로 승격되었고 춘천군은 춘성군으로 개칭되었다가 1989년 다시 춘천군으로 개칭되었고, 1994년 다시 춘천시와 통합되어 오늘에 이른다.

### 현재의 도시의 모습 읽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앞으로 달려가기 바빠서 그럴 여가가 없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갖고 싶은 춘천의 모습이 있듯이 나에게도 있다. “청풍이 불어오고 명월을 맞이하는 집과, 대문을 나서면 골목길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실작은 공원이 있는 동네. 아이 손 잡고 뒷동산 너머 산책길 따라 나서면 저 멀리 산자락에 아름다운 숲이 보이고 너울대는 겹쳐진 산들이 손짓하는 봄내골. 모처럼 땀흘리며 소양루에 올라 의암호에 퍼져 가는 노을로 마음을 씻고...” 20년전 춘천에 와 돌아본 그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나에게 급격히 변해 가는 춘천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눈을 감아 버리게 하곤 하였다. 때로는 경악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곤 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또한 춘천의 모습임을 깨달았다.

그사이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졌다. 아름다운 춘천의 산을 가리고 무례하게 호수를 빼앗아가고 햇볕조차 못 받게 다닥다닥 붙어 지어진 건물들이 속출하였다. 새로운 주거단지를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지어진 토지개발공사 주도의 단지에는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이 혼재하며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닝과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혼란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춘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이 또한 다음의 개발을 위한 교훈이지만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 것임에 틀림없다. 일부 건축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훈련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그만 있어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은 아직도 아름답다. 아직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춘천의 모습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 노력한 건축가들도 많이 생겨나 희망을 더욱 갖게 한다.

#### (1) 무엇을 지킬 것인가?

구봉산에 올라 바라보는 춘천의 경관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산 아래로 펼쳐진 야트막한 구릉에 조성된 아름다운 숲 사이로 주택들이 드문드문 펼쳐져 있다. 그 뒤로 병풍을 두른 듯 아파트군이 시야를 가로막지만 그래도 넉넉한 자연이 그를 감싸준다. 진산인 봉의산이 한림대학 건물에 의해 많이 점유되어 위엄있는 자태를 일부 잃었지만 아직도 참아 줄만 하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춘천이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중의 하나가 앞에 펼쳐진 숲 때문이고 저 멀리 보이는 의암호반의 물이지만 시민 대다수는 그것이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지켜진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누엇누엇 저기는 산 곁에 걸린 석양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받쳐주는 기반시설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춘천 모두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

서울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바라보면 토지개발공사 단지 개발과 더불어 1990년 이후 조성된 건축물들이 죄우로 늘어서 있고 멀리 진산인 봉의산이 보인다. 춘천의 건축물은 진산인 봉의산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그를 파먹어서도 막아서서도 안 된다. 1980년대만 해도 관청이 있는 거리는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이 정리되어 있었다. 관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봉의산이 가려지는 경우가 없게 하려고 봉의산 중턱에 위치한 도청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건물들이 높이를 스스로 한정하여 거리의 컨텍스트에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높은 사무소 건물 하나가 들어서더니 전체의 높이가 달라져 버렸다. 상업용지에 법



춘천의 진입부



중양로 로터리광장



어린이 회관

이 허용하는 한도 속에 지어진 건물을 어떻게 탓하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잘못된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나를 잘 보여준다. 춘천역에서 내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춘천의 경관. 높이 가려진 미군부대의 담장을 너머 보이는 봉의산 자락에 이 빠진 듯 솟아난 건물들의 모습. 이 같은 스카이라인의 모습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원래 대지의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층수 결정의 문제이다. 현재의 규정은 대부분 층수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언덕 위에 지어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 결정된 많은 건축물들이 춘천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다. 한정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하는 것은 당연할 일일지라도 주위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기능주의 시대의 건축이 한물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상업성만을 추구하다 잃어버리는 무형의 가치 때문이라고 볼 때 건축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심에 자리잡은 금융기관들. 언뜻 보면 이들은 춘천의 건축적 질을 많이 올려놓은 건축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형태, 새로운 재료의 사용, 뛰어난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격식을 갖춘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서울의 건축가들에 의해 지어졌다. 지방의 건축은 서울의 역량있는 건축가의 작품에 의해 자극 받고 분발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공적 성격을 띠는 건축물들 대부분이 너무 배타적임을 알 수 있다. 거리에 면하는 일층은 건물과 도시가 만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의 해석 여하에 따라 건축의 모습뿐 아니라 도시의 모습과 기능이 바뀌게 된다. 보안과 안전이라는 이름 하에 인도와 거리를 두는 폐쇄적인 디자인, 영업시간이 끝나면 밤새도록 시민의 접근이 되지 않는 디자인, 반드시 시민을 위해 무언가 서비스를 시작하여야 하지 않을까? 가로를 식막하게 만드는 것은 개개의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작은 공간과 그를 이어주는 조경의 부재에서 온다.

점점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인도를 지켜내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 중 중요한 것이다.

의암호의 물은 춘천을 찾는 사람들 뿐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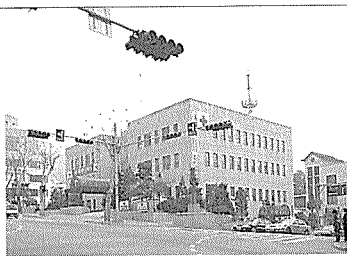
라 춘천시민의 일상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춘천의 건축이 엉성하고 무례하게 굴 때에도 의암호의 가득한 물은 그를 다 잊게 해 버린다. 문제는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관광진흥이라는 이름으로 분별없이 개발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수변을 어떤 모습으로 개발할까 하는 문제는 보다 심도있게 다룰 문제이다. 춘천의 자연은 물론 시민의 것이지만 그들만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다함께 길이길이 쓸 수 있도록 남겨주면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수변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로 개발되기보다는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산책로로 이어지는 공공의 거리는 양자 모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본다.

호수변에는 나름대로 잘 지어졌다고 상까지 받은 건축물과 다리가 있다. 그러나 서울 한강변에 죽 들어선 아파트같이 개발된 아파트도 있다. 장소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자리잡는 건축물은 누구의 책임인가?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찌 그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도시계획과 도시설계가 개개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모든 건축정책이 미리 정비되어야 하나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설계를 맡은 사람은 설계의뢰자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개개인은 최대의 활용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만 대부분 관심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쌓여 가면 오래가지 않아 아름다웠던 춘천의 모습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경관은 자연의 모습과 그 터에 들어서는 건물의 모습과 나무를 포함한 조경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춘천 땅에 계속해서 국적 없는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도 한번 되돌아볼만하다. 철골을 처음 사용하여 강원도 철골사용에 불을 붙인 호수변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건축을 보고 향의한 어느 시인의 마음을 춘천을 일구는 건축가가 새겨야 할 일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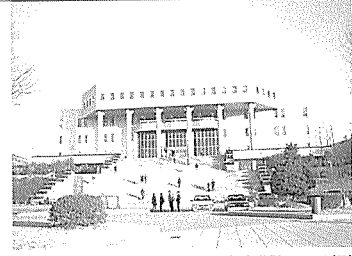
호수 넘어 겹겹이 너울대는 산들의 모습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배를 타보고 싶을 만큼 유혹하지 않는 선착장의 모습.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호수 안에 초대할 때 춘천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적십자 춘천지사



강원 평생교육 정보관



강원대학교 도서관

(2)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 장소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춘천의 중심에는 모처럼 마련된 차 없는 거리-명동이 있다. 그러나 별로 볼 것이 없다. 쉴 곳은 더욱 없다. 눈요기를 할 수 있는 상점들이 늘어섰지만 나머지는 비싼 돈을 들이고 들어가야 할 커피숍과 음식점뿐이다.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다운타운으로 나오지만 갈 곳이 없다. 교육은 꼭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내 한복판에는 심심한 사람을 안아줄 공공의 시설과 광장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를 키워주고 받아줄 시설물은 사용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간단한 진리가 통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포켓가든처럼 작은 공원의 개발, 상가의 거리를 덮어주는 천장, 지방자치 속에 허용된 건축과 조례개정을 통해 춘천만의 특색을 살릴 때가 왔다고 본다.

김수근 선생의 어린이회관은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 자꾸 들어서며 계속해서 대비가 된다. 작은 언덕에 다소곳이 자리 잡으려는 노력이 보여 주변 건축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장소의 문제를 갖고 논하게 되면 이 어린이회관은 별로 할 말이 없다. 접근성이 무시된 공간. 지방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교통의 문제이다. 공공의 대중교통의 부재는 모든 중소도시의 문제이다. 이용객이 적으니 회사는 계속해서 적자이고, 적자가 계속되면 서비스는 떨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비단 춘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보로 걸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은 그림의 떡인 것이다. 이용률과 충족도를 따져 장소를 정하면 적어도 반은 좋은 성과를 얻고 시작하는 것이거늘 대부분 싼 값에 편하게 구하기 쉬운 장소의 선택은 근본부터 문제있는 건축을 만들게 한다. 그래도 이곳은 아름답다. 외부인이 놀러오면 반드시 데리고 갈 정도로 경관이 좋은 곳이다. 벽돌로 지어지는 건축의 아름다움과 맛을 알려준 것도 기억 할만한 일이다.

도심의 문화재는 그 도시를 찾는 사람에게 그 도시의 역사성을 인식케 할 뿐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도 자긍심을 부여하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그러나 대부분 문화재는 커다란 덩치의 현대건축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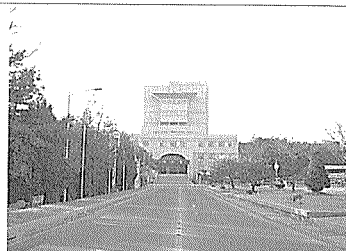
그를 시민의 곁에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는 넓다란 공간이 필요하나 엄청난 토지가격으로 매입이 수월치 않다. 도심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대부분 지정되어 있어서 용적률을 잘 이용할 경우 상당한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관에서조차 유혹에 빠지기 쉬운 대상이다.

문화재를 쉽게 접근하여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역사를 잊고 사는 우리를 보다 문화시민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통 조형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데 어찌 전통을 계승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행히 칠척석탑 정비와 같이 춘천시가 앞장 서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어 달라질 모습에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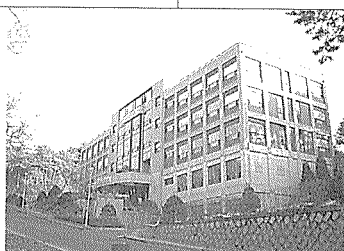
(3) 변화하는 새로운 모습

항상 잘못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성급히 서둘러 판단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1990년대 들어 춘천의 건축사 수는 날로 증가하였는데 양적 팽창 못지 않게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춘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로 지역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변화를 일거하고 있다. 어쩌면 이들의 어깨에 지역적 정체성을 가진 건축의 태동이 달려있는지도 모른다.

교육도시답게 춘천의 교육기관에 지어지는 건축들은 춘천 건축변화에 언제나 선두에 서 있었다. 강원대학교는 춘천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답게 1970년대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며 많은 건축들이 들어서며 기여를 하였다. 박물관, 도서관, 공동실험관, 제3학생회관, 정보통신연구소, 의대건물 등 언제나 새로운 건축을 이 땅에 선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림대학의 본관건물과 부속병원, 교육대학의 건물들, 강원고등학교 등도 춘천건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다. 1990년대 들어 강원도 교육청을 필두로 불기 시작한 교육기관의 변화는 소양중학교, 남춘천 초등학교, 남부 초등학교, 강원평생교육 정보관 등으로 이어지며 지역 교육시설을 확연히 바꾸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과 규정 속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려는 건축가의 노력이 돋보인다. 물론 건



강원대학교 미래관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강원대학교 태백관

물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교육환경이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춘천건축을 이끌어가는 건축물 중에 교육기관의 역할이 갖는 비중은 과소평가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새로운 제도 못지 않게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처하려는 강원도 교육청 산하의 공무원과 건축가들의 노력이 만들어가고 있는 중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새로 지어진 춘천소방서는 시민의 눈길을 돌리게 한다. 기능의 해석과 내부공간의 처리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주 보수적인 관공서 건물로는 매우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건축가의 노력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 완공된 두산 리조트와 강변의 마리나도 눈여겨 볼만하다. 비교적 잘 정리된 매스와 비례감, 환경에 적응하려는 유려한 선과 재질의 선택이 자칫 잘못하면 망치기 쉬운 강변 풍경을 보전케 하고 있다.

### 지역의 정체성 찾기 -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한번 지우지 않길 바라며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건축을 하는 지역건축가. 건축가들에게 이처럼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찌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야 하는 사람이 건축가이거늘. 유진 러스킨은 그의 저서 인간과 건축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은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소유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시공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기술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건축가를 위해서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건축은 항상 그래왔듯이 팀웍의 결과이다. 각각의 능력을 합하여 더욱 큰 에너지를 만드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야 한다. 개개의 건축물이 모여 만드는 도시가 점점 더 영망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더 이상 방지하여서는 안된다.

한때 우리는 나라를 잃은 적이 있다. 그 설움의 시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역사의 일부이거늘 우리는 아무런 느낌없이 그들을 지우고 있다. 거란의 침입, 몽고의 침입 이후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였고 임란 이후에도 또다시 삶의 터전을 가꾸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춘천은 더욱 많은 변화를 겪었다. 도시의 중심이 옮겨지고 새

로운 형식의 관청이 들어서고 도로도 새롭게 개설되었다.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며 일본식의 주택도 많이 들어섰다. 그리고 광복을 맞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시작할 때 6.25동란을 겪으며 다시 폐허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은 다시 시작하였다.

소양로 2가에 집단으로 개발된 도시형 한옥(기와집골이라고 불리고 있음), 봉의산 자락에 들어선 일본식 기옥들이 남아있는 채로 새로운 터에 근대화된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후 1970년대에 들어서 아파트도 세워지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암전하게 지어졌다. 주택공사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는 5층이 대부분이었으며 관공서나 상업건축도 5층을 넘는 것은 별로 없었다. 이때만 해도 자연과 주변환경에 대한 예의가 있었으며 건물 개개의 완성도는 높지 않았지만 산을 가리거나 다른 건물에 영향을 심각하게 만드는 건물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대량으로 밀어붙여 이 땅의 모습을 바꾼 것은 우리 모두가 살만하다고 우쭐하게 된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한 지역의 정체성이란 그 지역의 삶의 역사가 담겨 있어야 찾아진다. 그것이 우울했던 역사이던 자랑스러운 것이건 간에 건축은 그 시대의 거울이며, 역사가 아무리 위장하려 하여도 한 시대의 진정한 모습은 건축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 백년 이전의 건축만이 우리 것이라는 생각도 거들 때가 되었다. 상처가 나면 치료도 하고 수술도 받을 때가 있지만 일제시대의 발자취도, 근대화 과정에서 어설픔게 모방하였던 얼치기 근대건축도 한꺼번에 밀어 버리지는 말았으면 한다. 춘천다운 도시 가꾸기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뒤덮이는 거리가 아닌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하는 도시 만들기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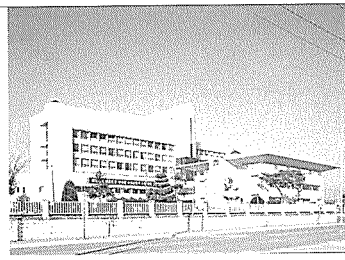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로 귀착된다. 춘천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는 춘천시민, 춘천시민의 희망과 삶을 이해하고 새로운 비전을 건축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사려깊은 건축가, 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공무원, 이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한데 어우러져 노력할 때만이 춘천에 삶다운 삶을 담아주는 진정한 건축문화가 조성되리라 본다.



소양중학교



남춘천초등학교



강원도 교육청